

▶ 일 정 표

회차	수요일 (10시)	토요일 (14시)	주 제	코 스	해 설
1	6/12		서정주의 국화염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문학평론가 이경철
2		6/19	운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운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운동주문학관	서울대 방민호교수
3		6/29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문학평론가 진은경
4	7/3		백석의 나와 나타사와 흰당나귀	최순우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시인 박미산
5		8/31 (오후7시 ~10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무교동 관광공사(박태원 생가터)-삼일빌딩 베를린광장-우미관터-수표교-광장시장	황미선/신수경 (서도연 연구원)
6	9/4		신동엽의 종로5가	종묘-종로5가 서시오판-창신동 백남준을 기억하는집	시인 박미산
7		9/14	박인환의 세월이가면	교보앞 표석-낙원동 책방 마리서사-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안양대 맹문재교수
8	9/25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광흥창 터-공민왕 사당-와우정(와우아파트 터)-당인리발전소-경의선책각-김대중기념도서관	권해상 (서도연 연구원)
9		10/5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한전사옥-스카라극장(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계동	박정아 (서도연 연구원)
10		10/12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김미선 (서도연 연구원)
11	10/23		손창섭의 길	필동 한옥마을-남산 문학의집-안중근기념관-회현동	한이수 (서도연 연구원)
12	10/30		임화 네거리의 순이	한무숙문학관-대학로-낙산-효제초등학교	전해경 (서도연 연구원)
13	11/6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창의문-현진건 집터(옛 무계동)-이광수 홍지동산장-평창동 박종화 가옥-영인문학관	이지현 (서도연 연구원)
14		11/16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세운상가 옥상-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개벽사 터-천도교 중앙대교당-운현궁	최서향 (서도연 연구원)
15	11/20		정비석의 자유부인	적선동-세종로-종각(옛 화신백화점)-을지로 입구(옛 아서원)-덕수궁 영성문	강영진 (서도연 연구원)
16		11/30	손장순의 한국인	회현동-남대문시장-대한상공회의소-북창동-공평도시유적전시관	심홍식 (서도연 연구원)

▶ 작가 소개 및 연보



▶ 1917년(1세)

12월 30일에 중화민국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부친 윤영석(尹永錫, 1895~1962), 모친 김용(金龍, 1891~1948)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나다. 본관 파평. 아명은 해환(海煥). 당시 조부 윤하현(尹夏鉉, 1875~1948)은 부유한 농부로서 기독교 장로였고, 부친 윤영석은 명동학교 교원이었다.

그보다 석 달 전인 9월 28일에는 고종사촌인 송몽규(宋夢奎, 1917~1945)가 외가인 윤동주의 집에서 태어났다(아명은 韓範, 부친 宋昌義, 모친 尹信永). 윤동주와 송몽규는 둘 다 기독교 장로교의 유아세례를 받았다.

윤동주의 호적을 비롯한 각종 공식 기록에 그의 출생이 <191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출생신고가 1년 늦었기 때문이다.

▶ 1923년(7세)

9월, 부친 윤영석은 관동 대지진 당시 동경에 유학중이었다.

▶ 1924년(8세)

12월, 누이 혜원(惠媛, 아명 貴女) 태어나다.

▶ 1925년(9세)

4월 4일, 명동소학교 입학, 같은 학년에 고종사촌 송몽규와 문익환 및 당숙 윤영선, 외사촌 김정우 등이 있었다.

▶ 1927년(11세)

12월, 동생 일주(一柱, 아명 달환) 태어나다.

▶ 1928년(12세)

서울에서 간행되던 어린이 잡지 『아이생활』을 정기구독 시작. 송몽규는 『어린이』를 정기구독. 그들이 다 읽은 후 동리아이들이 빌려서 읽음. 명동에 공산주의 만연. 급우들과 『새명동』이란 등사판 잡지를 만들다.

▶ 1929년(13세)

4월, 명동소학교가 〈교회학교〉형태에서 〈인민학교〉로 넘어갔다가 9월에는 중국 행정당 국에 의해 공립으로 강제수용되다. 외삼촌 김약연 평양 장로교 신학교 입학.

▶ 1930년(14세)

김약연 1년 수학 후 목사가 되어 명동 교회 부임. 명동에 공산테러 성행.

▶ 1931년(15세)

3월 20일, 명동 소학교 졸업. 송몽규, 김정우 외 1명과 함께 명동에서 10리 남쪽에 있는 대랍자의 중국인 소학교 6학년에 편입하여 1년간 수학하다.
이 해 늦가을 용정으로 이사.

▶ 1932년(16세)

4월, 용정 미션계 교육기관인 은진(恩眞)중학교에 송몽규, 문익환과 함께 입학하다. 부친 인쇄소 차렸으나 사업이 부진하다.

▶ 1933년(17세)

4월, 동생 광주(光柱) 태어나다.

▶ 1934년(18세)

12월 24일, 오늘날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인 시 3편을 제작 기일 명기하여 보관 시작
시 「초한대」(12. 24), 「삶과 죽음」(12. 24) 「내일은 없다」(12. 24)

▶ 1935년(19세)

1월 1일, 송몽규 『동아일보』 신춘문에 콩트 부문에 「술가락」이 아명 〈宋韓範(송한범)〉이란
이름으로 당선.

4월, 송몽규, 학업 중단하고 중국 낙양 군관학교 한인반 2기생으로 입교하러 중국으로
가다. 문익환은 평양 송실중학교 4학년으로 편입.

9월 1일, 은진중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윤동주도 평양송실중학교로 전학. 편입시험
실패로 3학년으로 들어간다.

10월, 송실중학교 학생회 간행의 학우지 『송실활천』 제 15호에 시 「공상」 게재, 최초로
작품 활자화되다.

시 「거리에서」(1. 18), 「공상」(『송실활천』 10월), 「창공」(10. 20), 「남쪽 하늘」(10)
동시 「조개껍질」(12)

▶ 1936년(20세)

3월, 송실중학교에 대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항의표시로 자퇴. 문익환과 함께
용정으로 돌아오다. 윤동주는 용정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에, 문익환은 5학년에 편입.

4월,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송몽규가 제남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본적지인
함북 웅기경찰서에 압송되어 고초를 겪다.

9월 14일에 거주제한의 조건으로 석방된 후 계속 요시찰인으로 감시당하다.

동시 「고향집」(1. 6), 「병아리」(1. 6)(『카톨릭 소년』 11월호 발표), 「오줌싸개지도」(『카톨릭
소년』 1937년 1월호 발표), 「기왓장내외」

시 「비둘기」(2. 10), 「이별」(3. 20), 「식권」(3. 20) 「모란봉에서」(3. 24), 「황혼」(3. 25),
「가슴 1」(3. 25), 「종달새」(3), 「山上」(5), 「오후의 구장」(5), 「이런 날」(6. 10), 「양지쪽」(6.
26), 「산림」(6. 26), 「닭」(봄), 「가슴 2」(7. 24), 「꿈은 깨어지고」(7. 27), 「곡간」(여름),

「빨래」. 동시 「빗자루」 「햇비」 「비행기」 시 「가을밤」(10. 23) 동시 「굴뚝」(가을), 「무얼 먹고 사나」(10)(『카톨릭소년』 1937년 3월호 발표), 「봄」(10), 「참새」(12), 「개」, 「편지」, 「버선본」(12월초), 「눈」(12), 「사과」, 「눈」, 「닭」 시 「아침」 동시 「겨울」(겨울), 「호주머니」(1936년 12월호, 또는 1937년 1월호 발표) 간도 연길에서 발간되던 『카톨릭 소년』에 동시 「병아리」(11월호), 「빗자루」(12월호)를 발표할 때 <尹童柱(윤동주)>란 필명 사용.

▶ 1937년(21세)

4월, 졸업반인 5학년으로 진급.

송몽규는 대성중학교(4년제) 4학년으로 편입하여 학업 재개.

8월, 백석 시집 『사슴』을 배껴 필사본을 만들어 가지다. 이 무렵 광명중학교 농구선수로 활약.

9월, 금강산과 원산 송도원 등지로 수학여행. 상급학교 진학문제를 놓고 부친과 심하게 대립, 결국 조부의 개입으로 본인이 원하는 <연전 문과>에 진학하기로 결정되다.

시 「황혼이 바다가 되어」(1) 동시 「거짓부리」(『카톨릭 소년』 10월호 발표), 「돌 다」, 「반딧불」 시 「밤」(3) 동시 「할아버지」(3. 10), 「만돌이」, 「나무」 시 「장」(봄), 「달밤」(4. 15), 「풍경」(5. 29), 「한운계」(7.1), 「그여자」(7. 26), 「소낙비」(8. 9), 「비에」(8. 18), 「명상」(8. 20), 「바다」(9), 「산협의 오후」(9), 「곤로봉」(9), 「창」(10), 「유연」(10. 24)(『조선일보』 학생란 1939년 1월 23일자 발표)

▶ 1938년(22세)

2월 17일, 광명중학교 5학년 졸업.

4월 9일, 서울 연전 문과 입학. 대성중학교 4학년을 졸업한 송몽규도 함께 입학하다. 연전 기숙사 3층 지붕 밑 방에서 송몽규, 강처중과 함께 3인이 한방을 쓰면서 연전생활 시작

시 「새로운 길」(5. 10)(학우회지『문우』 1941년 6월호 발표), 「비오는 밤」(6. 11), 「사랑의 전당」(6. 19), 「이적」(6. 19), 「아우의 인상화」(9. 15)(『조선일보』 학생란 발표. 1939년 추정), 「코스모스」(9. 20), 「슬픈 족속」(9), 「고추밭」(10. 26)

동시 「햇빛 · 바람」 「해바라기 얼굴」 「애기의 새벽」 「귀뚜라미와 나와」 「산울림」(5)(『소년』 1939년 발표). 산문 「달을 쏘다」(10)(『조선일보』 학생란 1939년 1월호 발표)

▶ 1939년(23세)

연전 문과 2학년으로 진급.

기숙사를 나와서 북아현동, 서소문 등지에서 하숙생활. 북아현동에서 살 때, 라사행과 함께 정지용을 방문, 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조선일보』 학생란에 산문 「달을 쏘다」(1월), 시 「유언」(2. 16), 「아우의 인상화」(날짜 미상)를 윤동주(尹東柱) 및 윤주(尹柱)란 이름으로 발표. 동시 「산울림」을 『少年』(날짜 미상)에 윤동주(尹童柱)란 이름으로 발표. 『문장』 『인문평론』을 매달 사서 읽다.

시 「달같이」(9), 「투르게네프의 언덕」(9), 「산골물」, 「자화상」(9)(학우회지 『문우』 1941년 6월호 발표), 「소년」

▶ 1940년(24세)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다. 고향 후배인 장덕순 연전 문과 입학. 같이 입학한 하동 출신 정병욱(1922~1982)과 깊이 사귀다.

1939년 9월 이후 주옥 절필하다가 이해 12월에 가서 3편의 시를 쓰다.

시 「팔복」(12월 추정), 「위로」(12. 3), 「병원」(12)

▶ 1941년(25세)

5월에 정병욱과 함께 기숙사를 나와 종로구 누상동 소설가 김송 씨 집에서 하숙생활 시작.

9월, 북아현동으로 하숙집 옮기다.

12월 27일, 전시 학제 단축으로 3개월 앞당겨 연전 4년을 졸업하다. 졸업기념으로 19편의 시를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란 제목의 시집을 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다. 시 「무서운 시간」(2. 7), 「눈오는 지도」(3. 12), 「태초의 아침」「또 태초의 아침」(5. 31), 「새벽이 올 때까지」(5), 「십자가」(5. 31), 「눈 감고 가다」(5. 31), 「못 자는 잠」「돌아와 보는 밤」(6), 「간판없는 거리」「바람이 불어」(6. 2), 「또다른 고향」(9), 「길」(9. 30), 「별헤는 밤」(11. 5), 「서시」(11. 20), 「간」(11. 29) 산문 「종시」

▶ 1942년(26세)

연전 졸업 후 일본에 갈 때까지 한달 반 정도 고향집에 머무르다. 부친 일본 유학 권하다. 키에르케고르를 탐독. 졸업증명서, 도향증명서 등 도일수속을 위해 1월 19일에 연전에

〈平沼東柱〉라고 창씨한 이름을 계출하다. 1월 24일에 쓴 시 「참회록」이 고국에서 마지막 작품이 되다.

3월에 일본에 건너가서 4월 2일에 동경 입교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 송몽규는 〈宋村夢奎〉라고 창씨한 이름으로 도입하여 4월 1일에 경도제국대학 사학과(서양사 전공)에 입학.

여름방학을 맞아 귀향했다가 동북제국대학 편입을 목표로 급히 도일. 그러나 동북제대로 가지 않고 10월 1일에 경도 동지사대학 영문학과에 전입학. 경도시 좌경구 전종고원정 27 무전 아파트에서 하숙생활.

시 「참회록」(1. 24), 「흰 그림자」(4. 14), 「흐르는 거리」(5. 12), 「사랑스런 추억」(5. 13), 「쉽게 씌어진 시」(6. 3), 「봄」(연대미상작품) 산문 「별뿔 떨어진 데」 「화원에 꽃이 핀다」

▶ 1943년(27세)

1월, 경도에 와서 맞은 첫 겨울방학에서 귀성하지 않고 경도에 남다.

7월 10일, 송몽규 특고경찰에 의해 경도 하압경찰서에 독립운동혐의로 검거되다.

7월 14일, 윤동주, 고희옥도 검거되다.

소식을 듣고 동경에서 면회간 당숙 윤영춘이 윤동주가 〈고오로기〉란 형사와 대좌하여 그가 쓴 우리말 작품과 글들을 일역(日譯)하고 있는 것을 목격. 외사촌 김정우도 면회.

12월 6일, 송몽규, 윤동주, 고희옥 검찰국에 송국되다.

▶ 1944년(28세)

1월 19일, 고희옥은 기소유예로 석방되다. 2월 22일, 윤동주·송몽규 기소되다.

3월 31일, 경도지방법재판소 제 2 형사부는 윤동주에게 〈징역2년(미결구류일수 120일 산입)〉을 선고(확정: 1944년 4월 1일, 출감예정일 1945년 11월 30일).

4월 13일, 경도지방법재판소 제 1 형사부는 송몽규에서 〈징역2년〉을 선고(확정: 1944년

4월 17일, 출감예정일: 1946년 4월 12일).

이들은 판결 확정 뒤에 복강형무소로 이송되어 복역 시작. 매달 일어로 쓴 엽서 한 장씩만 허락되다.

▶ 1945(29세)

2월 16일, 오전 3시 36분, 윤동주, 복강형무소 안에서 외마디 비명을 높이 지르고 운명.

2월 18일, 북간도의 고향집에 사망통지 전보 도착 부친 윤영석과 당숙 윤영춘이 시신을 가져오려고 도일, 북강 형무소에 도착하여 먼저 송몽규를 면회해서, 자신들이 이름 모를 주사를 강제로 맞고 있으며 동주가 그래서 죽었다는 증언을 듣다.

3월 6일, 북간도 용정동산의 중앙교회 묘지에 윤동주 유해 안장.

3월 7일, 북강형무소에서 송몽규 눈을 뜬 채 운명. 부친 송창희와 육촌동생 송희규가 도일하여 유해를 가져다가 명동의 장재촌 뒷산에 안장.

봄이 되자 송몽규 가에서 <청년문사송몽규지묘>란 비석을 해서 세웠고, 잇달아 윤동주 가에서도 <시인윤동주지묘>란 비석을 세운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조국이 해방되다.

▶ 1947년

2월 13일, 해방 후에 처음으로 유작 「쉽게 씌어진 詩」가 당시 주간이던 시인 정지용의 소개문을 붙여 『경향신문』 지상에 발표되다.

2월 16일, 서울 <플라워 회관>에서 첫 추도회 거행되다.

▶ 1948년

1월, 유고 31편을 모아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정지용의 서문과 강처중의 발문을 붙여서 정음사에서 출간

5월,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

8월,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거

▶ 1955년

2월, 서거 10주년 기념으로 유고를 더 보충한 증보판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가 정음사에서 출간되다. 이 증보판 시집부터는 정지용의 서문과 강처중의 발문이 제외되었다. 그들이 남북인사 내지 좌익인사라는 혐의를 받는 걸 꺼린 것이다. 냉전시대의 비극적 상황의 한 단면이었다.

▶ 1985년

일본의 윤동주 연구가인 조도전대학의 대촌익부(大村益夫) 교수에 의해 북간도 용정에 있는 윤동주의 묘와 비석의 존재가 한국의 학계와 언론에 소개되다.

▶ 1990년

광복절에 대한민국 정부는 윤동주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4월 5일에 북간도의 유지들이 명동 장재촌에 있던 송몽규의 묘를 용정 윤동주 묘소 근처로 이장하다.

▶ 1995년

광복절에 대한민국 정부는 송몽규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애국장〉은 〈독립장〉보다 한 등급 아래 훈장이다.

▶ 199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판을 거듭하면서 계속 증보되었다.

8월에는 윤동주의 작품을 모두 수록한 사진판 시집이 민음사 판으로 나왔다. 현재 윤동주의 시집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판본으로 번역되었고, 그의 전기를 비롯한 연구서적의 출간도 수십권에 이르고,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한 학술논문들은 3백 편을 상회한다.

출처: 개정판 '윤동주 평전'(송우혜 지음 / 세계사)

▶ 작품과 작가의 현장

• 서촌, 윤동주 순례길을 따라서



먹거리 많은 금천교 시장통

오늘은 서울의 윤동주를 찾아가는 길이다. 서촌 누상동 9번지 윤동주의 하숙집. 거기서 수성동 계곡 쪽으로 올라가 인왕산 스카이웨이를 타고 청운동 윤동주 문학관까지 가는 기행코스다.

윤동주의 하숙집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하차하는 것까지는 같다. 여기서 경복궁 1번 출구로 나가거나 2번 출구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

1번 출구로 나왔다면, 사직터널로 쪽으로 가다가 배화여대 앞에서 필운대로 쪽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더 재미있는 길은 2번 출구로 나왔을 때 펼쳐진다. 나오는 방향으로

10m 정도 걸으면 모퉁이에 ‘파리바게트’가 있는 골목이 나타난다. 그곳으로 접어들면 금천교 서촌 시장이다. 맛집과 볼거리가 잔뜩이다. 골목 초입 넘어 소리를 잔뜩 찌고 있는 ‘계단집’이라는 해물 전문식당도 있다. 해물라면도 맛이 참 좋다. 장사가 너무 잘 돼 자리를 더 넓혔을 정도다. 골목 사이에 두고 양쪽에 한쪽엔 음식 하는 주방이 없고 탁자만 놓여 있다. 사람들 줄이 길게 서있는 것만 봐도 유명한 집이라는 걸 금새 알 수 있다.

‘통영’이라는 이름이 붙은 생선구이 집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장사하는 곳이다. 아마 어머니 고향이 통영인 듯싶다. 『서울신문』 문화 전문 기사를 오래 하다 퇴직한 김문 씨 단골집이다. 이 통영 집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심산애’라는 막걸리 집이 눈에 띈다. 이 집 주인은 약초 캐는 산사람이다. 직접 산에서 캐오는지 모를 생더덕을 잔뜩 갈아 넣은 더덕 막걸리를 판다. 맛이 일품이다. 적당한 수준 이상으로 취하지도 않는다. 더덕주는 잘못 만들면 숙취로 아주 고생하게 마련인데, 이 집은 뒤탈이 없다. 이 집 앞을 지나쳐 골목을 더 걸어가면 필운대로 쪽으로 나오게 된다. 아까 1번 출구 쪽으로 나오라 했던 길과 합쳐지는 것이다.

청전 이상범 화백 가옥

이제 나는 필운대로를 걸어 윤동주 하숙집 쪽으로 걷는다. 이 길은 나도 처음 걷다시피 한다. 문득 어느 골목 안쪽으로 이상범 가옥이라는 표지가 보이는 듯하다. ‘청전 이상범의 가옥과 화실’. 청전 이상범이라면 신문 소설의 삽화를 많이 그린 당대 제일의 한국화가다. 그가 43년 동안 살았다는 가옥과 화실은 누하동 178, 181번지로, 거주 가옥 옆에 그림을 그리던 화옥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나는 이상범 가옥에 들어가 마당 한쪽에 늘어선 장독들을 사진에 담고,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대청마루에도 앉아 늦봄의 햇살을 쬔다. 전통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그곳은 아직까지 노 화가의 체취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일제 강점기부 1970년대까지의 시기 거친 청전 이상범(1897.9.21.~1972.5.14.)은 소정 변강식과 함께 한국화의 2대지주로 불린다. 이상범은 안중식(안중식, 1861.8.24.~1919.10.26.)의 제자로, 스승의 호 ‘심전(心田)’의 심(心)은 제자 노수현(1899~1978)이, 전(田)은 이상범이 이어받아, 심산(心汕) 노수현과 청전(靑田) 이상범이 된다. 안중식이 장승업의 제자였던

점을 상기하면, ‘장승업-안중식-이상범, 노수현’ 한국화의 계보가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상범은 문학사에서 기억될 만한 사람이다. 그는 동아일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삽화의 세계를 개척했다. 이광수의 소설 『단종애사』(『동아일보』, 1928.11.30.~1929.12.1., 217회 완), 『이순신』(동아일보, 1931.6.26.~1932.4.3., 178회 완), 『흙』(동아일보 1932.4.12.~1933.7.10.; 한성도서주식회사1953), 염상섭의 『사랑과 죄』(동아일보1927.8.15.~1928.5.4(257회 완) ; 박문서관1931), 심훈의 『상록수』(동아일보1935.9.10.~1936.2.15(127회 완) ; 한성도서1936), 김말봉(1901.4.3.~1961.2.9.)의 『밀림』(동아일보1935.9.26.~1938.12.25(389회 미완) ; 삼문사1940(조선문인전6)), 박태원의 『군상』(조선일보 1949.6.15.~1950.2.2.(193회 미완)), 『적멸』(동아일보1930.2.5.-3.1(23회 완)), 강경애(1906.4.20.~1943.4.26.)의 『인간문제』(동아일보1934.8.1-12.22(120회 완) ; 노동신문사1949), 현진건(필명 적도(赤道) 현빙허(玄憑墟),1900.8.9.~1943.4.25.)의 『적도』(동아일보1933.12.20~1934.6.17(135회 완) ; 박문서관1939), 염상섭(1897.8.30.~1963.3.14.)의 『진주는 주었으나』(동아일보1925.10.17~1926.1.17(86회 완)) 등 굉장히 많은 소설에 삽화를 그렸고, 그것을 생업의 일종으로 삼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일어난다. 손기정이 마라톤 금메달을 딴 직후 일장기말소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당시 가슴에 먹칠을 해 일장기를 없앤 동아일보에서 직책을 맡고 있던 이가 이상범이었다. 그 일이 기화가 되어 동아일보를 그만 두고, 심지어는 옥고까지 치러야 했다. 이 사건만 보아도 이상범이 민족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다시 대로를 따라 걷자 이번에는 정자가 하나 나온다. 이 정자가 옛 지명 누각동을 가리키는 정자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정자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꺾어져 위쪽 오르막길로 접어들면 이제 누상동이다. 필운대로도 그렇지만, 누상동의 골목은 지금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잔뜩 들어섰다. 서촌의 명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trification)의 산물이다.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본의 운동에 따라 땅값이 싼 평범한 동네가 상업화 되고 명물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간다. 이곳 서촌 말고도 문래동도 그 한 예다. 철공소와 맛집이 전부였던 그곳에 예술인들이 모여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동네가 예술인촌으로 부상하자 상권이 형성되고 집값이 올라갔다. 이곳 서촌도 십 년 전부터 각광을 받아왔다. 그동안의 시간이 골목골목마다 새겨져 있다. 알뜰하게 장식한 카페와 옛 정취를 풍기는 오락실 같은 곳들. 이 오락실에선 정말 고전적인 게임인 갤러그 밖에 못한다. 수제맥주집이라든지 피규어샵 같은 곳을 따라 조금 더 걸어 올라가자 드디어 나온다, 윤동주의 하숙집.

누상동 9번지 소설가 김송의 집에 들다



송우혜 작가의 평전에 따르면 윤동주는 이 하숙집에서 1941년 5월 7일부터 9월 초까지 약 다섯 달 정도 생활했다고 한다. 당시 이 집의 주인은 작가 김송(1909 ~ 1988)이었다. 김송은 본명이 김금송으로 함경남도 함주 태생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희곡작가이자 소설가로 활동했으며 1988년까지 생존해 있었으나 그에 대한 문학사적 관심은 매우 적고 연구도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는 오랫동안 고향선배 한철야(1900.8.30~미상)에게 의지하며 문학에 많은 것을 배웠다.

김송은 일본의 니혼대학을 중퇴하고 돌아와 1930년 신흥극장이란 극단을 세운다. (학교를 마쳤다고 하지만 중퇴한 것 같다.) 집이 아주 잘 살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최초 공연한 작품 《지옥》이 문제가 되었다. 원래 제출했던 대본과 실제 공연한 내용이 다르고, 일제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빌미로, 극단은 강제 해산 당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김송은 요시찰 인물이 된다. 그는 결혼을 세 번이나 하는데, 첫 번째 부인과 고향에 낙향해 있 두 번째 부인과 만나 처자식을 데리고 함께 서울로 온다. 1939년 2월 9일, 그들이 터 잡은 곳이 바로 윤동주가 하숙했던 누상동 9번지다. (녹취로는 몇 번째 부인의 이야기를 하는지 불분명함. 뒤의 녹취로 추측해볼 때, 첫 번째 부인과 고향의 낙향에 갔다가 두 번째 부인 조씨를 만나 서울로 온 것 같음. 내용 확인 요망) 대지가 1백 수십 평에 달하는 그곳은, 과거 무당들이 굿하고 살풀이하던 흥가를 기와로 신축한 건물이었다. 흥미로운 내력이다. 지금은 다세대 주택으로 변해 당시의 건물은 찾아볼 수 없지만, 누상동 9번지의 집터를 확인할 수 있다. 태극기와 표지판도 있어 쉽게 눈에 띈다.

누각동과 누상동

동네지명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누각동과 누상동은, 광해군 때 세우다 완성되지 못한 채 폐기된 인경궁의 누각을 기준으로 위아래 공간을 나눈 다음 붙인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누각동의 일부가 누상동으로, 1936년 4월 구제 실시로 종로구 누상정으로 바뀐다. 후에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이 동으로 바뀔 때 누상동이 된 것이다. 흥미로운 곳은 또 있다. 윤동주의 하숙집에서 마을버스 10번을 타고 인왕산 쪽으로 올라가보자. 종점에 닿으면 옥인동이 나온다. 그곳이 바로 겸재 정선(1676~1759)

의 작품 《장동팔경첩》의 일부인 〈수성동〉이다. 그 그림을 사진으로 출력해 만든 표지판이 수성동 계곡 앞에 서 있다. 수성동 계곡은 세종의 둘째 형 효령대군의 집터로, 연유는 불명확하지만 세조 때 양평대군이 갖게 된다. 양평대군은 〈몽유도원도〉를 그리는 등 굉장히 풍류가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곳에 화려한 집을 짓고 계곡 사이에 기린교를 놓고 즐기며 살았다. 후에 1950년대까지 존재하던 기린교는 1960년 옥인시범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7년 대통령 경호실이 청와대 근처 문화유적 조사 과정에서 옥인시범 아파트 옆 계곡 암반의 벽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네이버 검색) 그때나 지금이나 인왕산에서부터 내려온 계곡물이 〈수성동〉 그림 그대로 기린교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

윤동주 고향 명동촌 생각

드디어 만났다. 누상동 9번지 윤동주의 하숙집. 안내 표지판과 함께 태극기가 붙어 있다. 윤동주라. 윤동주와 처음 마주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어렸을 때부터 읽던 「서시」, 그리고 「별 헤는 밤」. 이 시들이 적혀 있는 책받침을 좋아했다. 그후로는 전공이 소설이어서 그랬는지 그를 점차 잊었던 듯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쯤 우연히 그의 고향 명동촌에 다녀온 적이 있다.

만주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연길이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용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차로 3,40분 달리면 명동촌이다. 당시 나는 먼저 서울에서 창춘(長春)으로 갔다. 장춘은 옛 만주국의 수도요 그때는 신경(新京)이라 불렸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溥儀, 宣統帝, 1906~1967)가 일제의 꼭두각시 나라였던 만주국 황제가 되었고 그 궁궐이 아직도 남아 만주국 박물관이 되었다.

이 창춘에서 그때 나는 곧장 이효석의 도시 하얼빈으로 갈 수도 있었건만 먼저 연길, 용정을 거쳐 명동촌으로 갔다.

용정은 '일송정 푸른 숲은 늙어늙어 갔어도'로 시작하는 조두남의 작곡 윤혜영 작사의 「선구자」가 탄생한 곳이다. 1931년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푸이를 명목상 통치자로 내세워 만주국을 세웠다. 이 괴뢰 나라의 수도가 세워진 때가 1932년이다. 당시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의 염원을 간직한 사람들은 북간도로 가 땅을 개척하며 살았는데, 그 무렵 바로 조두남이 용정으로 향했던 것이다. 1932년은 윤동주가 은진중학교에 입학한 해이기도 하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명동촌이 있다.

윤동주 집안의 북간도 이주는 증조부가 되는 윤재옥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재옥이 43세였던 1886년, 부인과 4남 1녀의 자식들을 이끌고 함북 증성군 동풍면 상장포를 떠난다. 두만강 건너편 자동에 처음 자리 잡으며, 윤동주 집안의 북간도 생활이 시작됐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2016.02.17.)의 첫 장면도 윤동주의 고향 명동촌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1917년 12월 30일에 윤동주가, 그보다 3개월 전에는 윤동주의 고종사촌 송몽규가 태어났다. 송몽규는 활발한 기질의 소유자이면서도 문학을 좋아했다.



▶ 송몽규

운명적인 두 사내의 생애

송몽규는 연희전문 시절 잡지 《문우》(연희전문대 문과학생회 문학동아리들의 잡지, 1932년 창간, 1941년 마지막호 발간)를 운영하며 윤동주와 함께했고, 일본 유학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송몽규는 교토대학에, 윤동주는 릿쿄대학에 입학했지만, 윤동주가 교

토에 있는 동지사대학으로 편입을 하면서 그 인연을 이어갔다. 송몽규는 연희전문대 문과에 입학하기 전, 광복군 무관 양성을 위해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에 설치된 한인 특별반 2기생으로 입학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후에 독립운동을 하다 입교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1936년 4월 제남에서 체포 압송되었다. 본적지인 함북 웅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어 일찍부터 요시찰 인물이었다. 때문에 송몽규와 가까운 사이였던 윤동주 또한 감시는 물론 미행까지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들은 민족주의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후쿠오카 감옥으로 보내졌다. 독립운동에 관련된 조선인들을 수감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온갖 노역과 고문, 생체실험을 당한 뒤 생을 마쳐야 했다.

나는 그때 이 운명적인 두 사내의 생애를 생각하며 명동촌 윤동주를 기리는 집 앞에서 있었다. 평일이었기에 그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올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형버스 한 대가 달려왔다. 작은 문으로 사람들이 스무 사람쯤 내리는데 중노의 관광객들 같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서 귀에 익은 한국말이 들렸다. 그들이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그 속에서 체구가 크지 않은 분의 모습이 보였다. 신경림 시인이었다. 다산 연구가 박석무 선생도 계셨다. 백두산 가는 여행길에 명동촌을 들리셨다고 했다. 먼 타지에서 만나는 우리 시인이라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인왕산 수성동

이름도 이쁘고 골목도 아기자기한 길을 올라가면 인왕산이 나온다. 서울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산이 인왕산이다. 북한산이나 관악산은 많이 가지만, 삼각산, 북악산은 잘 안 간다. 야경이 좋아서 북악 스카й웨이를 많이 가긴 한다. 인왕 스카й웨이기도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인왕산은 자주 올라가는 이들 빼고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또 백악산이라고 있더라. 백악산은 거의 모른다. 장동팔경첩은 인왕산과 백악산의 풍경을 그린 첩이다. (검색 결과→ 크게 백악산 일대(취미대, 대은암, 독락정, 청송당), 인왕산 기슭(청풍계, 청취각, 필운대), 백악산과 인왕산의 중간지점(창의문, 자하동, 백운동)으로 구분)

종로는 조선인들의 전통적인 삶의 지대였다. 경복궁 서쪽인 서촌도 여전히 그러하다. 누각동과 누상동을 비롯해, 옥인동, 적선동, 청운동 등 자그마한 동네가 다닥다닥 모여

있다.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동네가 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상의 집이나 금천교 시장까지만 발길을 들었을 뿐 나에게겐 여전히 멀고 외진 곳처럼 느껴졌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윤영석과 어머니 김용의 장남으로, 그의 고향은 1899년 2월 함경북도 종성 출신의 문병규, 김악연, 남중구와 회령 출신의 김하규, 네 가문의 식솔 140여명이 집단 이주해 세운 한인마을이었다. 북간도 한인 이주사에 이정표를 마련한 곳이다. 용종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윤동주는 1932년 4월 명동 소학교 동창인 송몽규, 문익환과 은진중학교에 진학한다. 이름을 아명(兒名)이었던 해환 대신, 윤동주로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1935년 9월 송실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지만 신사참배문제로 학교가 폐교되어 다시 용정으로 돌아가 중학 과정을 마친다. 그렇게 청운에 꿈을 품고 공부하러 온 곳이 바로 연희 전문, 지금의 연세대학교다. 그때가 1938년이다(확인 요망). 1/2학년(확인 요망) 때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북아현동을 비롯한 여러 동네에서 하숙을 전전한다.

인왕산을 생각하면 김동인의 예술주의적 단편소설 「광화사」(1935. 12, 『야담(野談)』에 발표)가 떠오른다. 주인공 나는 인왕산 꼭대기에 올라가 경성 시내를 내려다보며 하나의 이야기를 상상한다. ‘어느 화공의 얘기를 지어내 볼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공이 누군가. 신라의 솔거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이름은 솔거라 하자. 역사상 가장 살기 좋았던 때는 언제가. 세종 때까지 태평성대 했으니, 시대적 배경은 그때라 하자. 지금 앉아 있는 인왕산의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있겠는가. 배경은 인왕산 자락이다. 천하의 추남인 화공 하나가 아름다운 미인도를 그리고자 한다. 눈 먼 처녀를 만나 그의 욕망이 실현되려는 찰나 좌절된다.’ 필연성 없이 공상과 상상에 의지해 이야기를 만든다. 이것은 마치 쿠타가와 류노스케(1892.3.1.~1927.7.24.)의 예술적인 소설 「지옥변」을 연상케 한다. 이 「광화사」는 김송의 소설과 함께 잡지 《야담》의 마지막 편에 수록된다. 이것만 보아도, 윤동주와 그 시대의 문학이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연희전문의 학생이었으나, 윤동주는 단순한 문청이 아니었으며 당시 문단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병욱의 회상

정병욱은 윤동주와의 잊을 수 없는 일화를 회상하며, 인왕산 수성계곡을 언급한다. 《나라사랑》 23집(1976년 외솔회 여름호-확인 요망)에 실린 그 글은 송우혜의 『윤동주 평전』(세계사, 1998) 273쪽에 재인용 되어 있다.

“그 무렵 우리 일과는 대충 다음과 같았어. 아침식사 전에는 누상동 뒷산인 인왕산 종턱까지 산책을 했어. 세수는 골짜기 아무데서나 하고, 방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고 조반을 마친 다음에는 학교로 나갔지. 하학 후에는 소공동 한국은행 앞까지 전차를 타고 나가 충무로 일대의 책방들을 순례했어. 지성당, 일한서방, 마루젠(丸善), 군서당과 같은 신간서점과 구서점들을 돌고 나서 음악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며 새로 산 책들을 펴보곤 했지. 가끔은 극장에 들러 영화를 보기도 하고, 다시 명동에서 도보로 을지로를 거쳐 청계천을 건너 관훈동 헌 책방을 순례하고 돌아오면 이미 어둑해져 거리에 전기불이 환하게 밝혀졌지.”

당시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진짜 산골짜기 길이었을 게 아닌가. 지금은 인왕산을 깎아 만든 인왕스카이도 없었을 때다. 거길 걸어 수성동 계곡까지 올라간 거다. 정병욱과 윤동

주는 아침부터 그 인왕산 중턱까지 올라 아침산책을 한다. 산의 정기를 맛보기 위해서였을 거다. 아래로 흐르는 수성동 계곡물에 세수를 하고 내려와 함께 밥을 먹고, 윤동주는 연희전문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하교할 때는 기차편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면 갈 때는 걸어 다녔을 것이다.(등하교 방법과 1938년도 전차노선도 확인 요망) 연희전문까지는 꽤 먼 거리니, 산길로 가면 지름길이 있었을 것도 같다. 수업이 끝나면 충무로까지 가는 전철을 탄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구보가 조선은행 앞에 내려 경성역을 가지 않았다. 아마 조선은행까지 연결되는 전차길이 있었을 것으로 새워진다. 그는 남촌의 서점들을 순례하며 일본에서 직수입한 책을 보고 어둑할 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온다. 이어지는 다음 대목을 보자. 김송의 부름으로 한 두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방에 들어와 공부하다 잠이 든다. 당시 정병욱은 이러한 일상 속에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만한 시기를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윤동주의 작품 세계



누상동 하숙집에서 보낸 문제적 다섯 달

바로 이 시기에 윤동주는 자기 시 18편이 담긴 원고를 3부 손수 필사한다. 그렇게 만든 수기원고 1부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함께 하숙하던 정병욱과 이양하 교수(1904~1963)에게 각각 한 권씩 선물한다. 이양하 교수에게 1부를 바친 것은 출판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이었으나 이 교수는 일제 관헌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뿐더러 신변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출판을 보류하라고 답한다. 그의 첫 시집 출판이 해방 이후로 미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뒤, 윤동주는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윤동주에게 있어 누상동 9번지에서의 하숙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김송의 일대기에 관한 논문을 읽어보면, 그가 굉장히 활발한 성격에 문단적인 교류가 빈번한 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정식으로 문단 내부에 진입한 시기는 매우 늦다. 김송은 1941년 11월 김동인(1900.10.2.~1951.1.5.)이 왕년에 운영했던 잡지 《야담》에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소설가로서 정식으로 소설계에 진입했다. 그 전까지는 희곡과 연극에 집중하다, 윤동주가

떠난 즈음해서 정식 문단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때에 이르기까지 김송은 이태준(1904.1.7.~미상), 이용악(1914.11.23.~1971.2.15), 이근영(1910~미상), 이기영(1895.5.29.~1984.8.), 이주홍(1906.5.20.~1987), 송영(본명:손무형, 1903.5.24.~1979), 박세영(1907.7.7.~1989.2.28.), 엄흥섭(1906.9.9.~미상) 등과 카프 계열의 작가들 뿐 아니라 순문학작가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때문에 그의 하숙집에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었을 거라 추측된다. 그러나 일찍부터 요시찰인물이었던 김송에게는 고등계형사들의 방문이 빈번했다. 윤동주의 침착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비춰봤을 때 오래 견디기 어려웠을 게 분명하다. 당시 학제에 따르면 1학기는 4월에 시작, 9월까지 방학이었으며, 10월이 되어야 신학기가 시작했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다녀온 윤동주는 집을 꾸리고 다른 하숙집으로 옮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전까지 시간을 보낸 누상동 9번지는 여전히 문제적 공간으로 남는다. 5달 남짓의 시간 동안 10편의 시를 쓸 정도로 윤동주 시의 산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쓴 시의 총 분량을 고려하면, 하숙하는 동안 시 창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그건 아마도 김송의 집을 드나드는 문인을 통해 문단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 시기동안 자신은 어떤 문학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백석과 프란시스 잠과 윤동주

최근 누상동 9번지를 향하기는 길가에 <백석의 흰 당나귀>라는 카페가 생겼다. 여성시인 박미산이 운영하고 있는 와인바다. 백석 문학에 관심을 갖고 늦게 공부를 시작한 분이다. 그녀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에는 백석을 좋아하는 연구자가 많다. 최동호 교수는 출판사 서정시학에서 『백석 문학전집』(최동호, 이동순, 김문주 저, 서정시학, 2012.07.10.)을 완성된 판본으로 출판했고, 외에도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이자 백석 연구자인 고형진도 백석과 관련한 주요 저술을 냈다.

백석의 등장이 갑작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백석과 윤동주는 어떻게든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의 시인 프랑시스 잠(Francis Jammes, 1868.12.2.~1938.11.1.)의 시풍과 유사성이 있다. 윤동주는 자신의 시에서 프랑

시스 잠을 직접 언급했다. 윤동주는, 백석이 《사슴》을 100부만 찍어 지인들에게 나눠준 탓에 시집을 구할 길이 없자, 도서관에서 필사했다. 그만큼 윤동주는 백석의 시를 좋아했다. 윤동주의 하숙집 가는 길에 백석의 이름을 딴 카페가 생긴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흰 당나귀’는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나오는 단어다. 그 시구를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자.

‘산 속으로 가는 건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가는 것이다.’

프랑시스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고향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에서 은둔하며 살았다. 프랑스의 전원적인 세계 속에서 숨어 살며 시를 썼던 것이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백석의 모습과 멀지 않다. 백석은 평양에 가서도 활동하지 않고 삼수갑산에 들어가 30여년 씩 농사지으며 살았다. 만주에서도 더 먼 장춘에 귀농한 뒤 쓴 시 「귀농」을 떠올려보자. 프랑시스 잠과 백석 그리고 윤동주, 시도 소박하고 삶도 가난하다. 그들은 작은 짐승과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풍으로 연결된다.

정지용과 윤동주

윤동주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이 바로 정지용이다. 1935년 9월 윤동주가 평양 숭실중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했을 당시, 정지용의 시집이 나왔다. 이때 윤동주는 7개월 동안 객지생활을 하며 시 10편, 동시 5편을 써냈다. 학생 청년회에서 발행하던 《숭실활천》(1935년 10월)에 실린 〈공상〉은 그의 시 가운데 최초로 활자화된 작품이었다. 송우혜는 정지용의 시집에 심취한 윤동주가 쉬운 말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시세계를 열어나갔다고 말한다. 1935년 12월에 쓴 〈조개껍질〉을 시작으로 1938년 연희전문 1학년 때까지 계속된 그의 동시 쓰기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윤동주의 동시 세계가 강서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송우혜가 주장하는 맥락에서 1939년 3월 잡지 《문장》에 실린 「백록담」을 떠올린다.

1년 전인 1938년은, 조선어가 필수과목에서 탈락하고 일본이 조선의 언어 교육을 탄압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던 해였다. 결국 1939년 8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강제 폐간되기에 이르렀다. 1941년 4월에는 잡지 《문장》마저도 폐간시키고, 잡지 《인문 평론》(1939.10.~1941.4.)의 뒤를 이어 일본어로 창작된 작품만 발표 가능한 국민문학지 《국민문학》(월간문예잡지, 1941.11~1945.5월)를 출간하게 된다. 다시 말해, 1939년은 민족어가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그 무렵 백석은 만주로 떠나고, 정지용은 그 시대의 험난한 파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쓴 시가 『백록담』이다.

『백록담』은 한라산을 올라가는 여정을 쓴 시로, 유장하면서도 깊은 고뇌를 담고 있다. 9연으로 구성된 시 첫 연에서 화자는 ‘백국채 꽃’을 본다. 한라산은 고산지대다. 아래가 아열대, 위가 냉대에 가까워, 위로 올라갈수록 ‘백국채 꽃’이 잘 자라지 못한다. ‘백국채 꽃’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허리가 꺾이고 모가지가 쓰러진다. 얼굴만 가웃 내다보다가, 바람의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만나는 곳에서는 아예 없어질 정도가 된다. ‘바람이 차기가 咸鏡道(함경도)끝과 맞서는 데서 백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객관적 상관물인 백국채 꽃을 통해 시인은, 역사의 험난한 길을 오를 때마다 지식인, 시인들의 내면세계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 시기가 바로 1939년의 시절이었다.

‘八月한철엔 흠어진 星辰(성신)처럼 爛漫(난만)하다.//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백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산 그림자가 어둑해지자, 화자는 꽃밭에서 기진한 몸을 눕힌다. ‘박했다’가 아니라 ‘기진했다’이다. 8월 한철의 밤하늘에 끼어든 별이 꽃과 그를 비춘다. 지상의 타락하고 험난한 세계와 밤하늘의 별. 조금 더 가보자. 2연, 이틀 째 여정이다. 화자는 아침 밥을 먹고 길을 갔다가 아니다. ‘巖古蘭(암고란), 丸藥(환약) 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윤동주가 맡겨놓은 장서들을 살펴보니 많은 책들 가운데 『정지용 시집』과 『백록담』(문장사, 1941)이 눈에 띄었다. 윤동주(실제 녹취에서는 정지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맥락상 윤동주인 것으로 생각됨. 확인 요망)은 《인문평론》과 《문장》을 매달 읽었다. 1939년 3월에 쓴 『백록담』은 시집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장지에서 읽었을 것이다. 문장지에 뭐가 있나? 그 꽃의, 역사의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지식인, 시인의 내면의 모습과 그것을 비추주는 밤하늘의 별이 있다. 타락하고 험난한 지상과 밤하늘의 별이라는 이원성의 세계가 윤동주에게 깊이 인식되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침내 『백록담』의 화자가 정상에 달는다. 백록담에 하늘의 모습이 비춘다. 그런데

실구름 한 조각만 있어도 흐려진다.

‘가재도 기지 않는 白鹿潭(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不具(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쫓겨온 실구름 一抹(일말)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 윤동주의 <자화상> 속 거울과 유사하지 않은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날마다 청동거울을 손바닥으로 닦는 화자가 떠오른다. 마음을 비추는 세계가 서로 닮아 있다. 윤동주는 정지용보다 아랫세대로 15년 이상 차이나는, 문단사로 보자면 2, 3세대 후배다. 백록담이라는 이 명경은 역사에 대해 처절히 고민하던 윤동주에게 청동거울의 자화상과 우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의 형태로 살아있었다.

어떤 외국 시인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문학의 중요한 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소월(1902.8.6.~1934.12.24.)은 자연과 낭만적 사랑의 세계를, 정지용(1902.6.20.~1950.9.25.)은 청신한 감각과 자아성찰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 뒤를 이은 윤동주는 1941년 5월부터 9월까지 누상동 9번지 시절을 전후로 해, 정지용의 백록담의 세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해나갔다.

자화상과 참회록

「자화상」은 1939년 9월에 쓴 시로, 누상동 시절의 시는 아니다. 송우혜 선생은 아현동 하숙 당시 쓰인 거리고 추측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외딴 우물에 얼굴을 비춰보는 모습은 정지용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실구름에 가려지는 백록담은 자기 내면의 모습이며, 실구름은 자기에겐 있는 부끄러움일 수 있다.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아성찰의 깊이 또한 정지용의 체취가 묻어난다. 「백록담」은 39년 3월에, 자화상은 그 해 9월이다. 순서상으로 「백록담」이 앞서며, 윤동주가 백석과 더불어 정지용을 매우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참회록」을 보자. 1942년 1월 24일, 일본 유학을 위해 윤동주는 히라누마(平沼)로, 송몽규는 소무라 무게이(宋寸夢奎)로 창씨개명 신고를 한다. 당시에는 호적과 학적부의 이름만 달라도 도항증을 받을 수 없었다. 송우혜의 글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 중 하나가 도항증을 받는 대목이다. 1936년 도항증명서에 관련하여 풍자적인 글을 썼던 광수의 예를 통해, 도항증명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조선인을 엿어매는 끔찍한 수단이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윤동주의 일본 유학이 당시에 얼마나 힘든 문제였는지에 관해 설명한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이다지도 욕될까.’

창씨개명 후 유학을 앞두고 쓴 「참회록」은 자아성찰의 응시와 자기 객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시풍은 정지용과 연결시키기에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를 아마추어 청년 시인으로 여긴다. 본격적인 등단을 하지 않았고, 죽은 뒤에야 작품집이 나왔으니깐. 그러나 누상동 9번지 하숙집 이야기나, 백석과 정지용 등 당대 제일의 문학에 깊이 심취하며 연마를 거듭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단순한 아마추어 시인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이미 그는 시인으로서 자신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 다만, 조금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벽주의 때문에 작품 활동을 꺼렸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선불리 문단에 끼어들지 못했을 뿐이다.

창씨 개명 문제와 순수한 죽음

누상동 9번지로 돌아와 보자. 그때의 시를 보면 죽음에 대한 예감이 느껴진다. 오래 산 노인은 마치 귀신처럼 뭔가를 꿰뚫어보고 혼령을 보기도 한다고 한다. 앞선 강의에서

『중생기』(《조광》 5월호, 1937년)를 예로 들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이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알레고리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편의적으로 볼 때 1910년생이었던 이상이 소설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럼, 골몰하고 몰두했던 윤동주 또한 자기의 운명을 직감한 것일까 생각한다. 특히 1941년은 태평양 전쟁으로 나아가는 시기였다. 게다가 윤동주 스스로도 학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하는 지로 고민하던 때였다. 역사의 진폭이 너무나도 큰 시대에서 진로마저 갈림길에 처해있던 당시, 그의 내적 고민은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듯 시만 보아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청년 윤동주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듯 보인다. 누상동 시절 전인 1941년 2월 7일에 쓴 『무서운 시간』이라는 시가 있다.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송우혜 선생도 이 시를 보고 ‘무서운 시’라고 했다. 나는 이 시 속에서, 자기 앞에 닥쳐온 운명을 끌어당겨서 보고 있는 시인의 투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의식의 분석』,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은 무의식에 관한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1875.7.26.~1961.6.6.)의 개설적인 글이다. 논문에서 든 한 사례로 12살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녀는 매번 무서운 꿈을 꾸고 난 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아버지에게 보여준다. 괴상망측한 그림에 놀란 아버지는 융에게 딸의 정신 감정을 부탁한다. 융이 실제로 보고 그림을 해석한 결과, 그것은 ‘임박한 죽음’이었다. 즉, 소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생의 종착점에 이른 자신을 보고 있던 것이다. 꿈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계속해서 그림으로 그렸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윤동주의 날카로운 본원적 무의식이 던지는 운명의 예감을 시에서 느낀다.

1941년 방학을 맞아 북간도 고향에 간 그는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를 쓴다. 이 시 또한 예감의 시로 읽혀진다. 시에 등장하는 ‘백골’은, 정지용 「백록담」의 3연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흰것이 송없지 않다.’와 관련있는 듯 보인다. 총루가 뭔가. 해골이다. 백화나무가 해골처럼 하얗게 변해 죽는데, 시인이 뭐라고 하나? ‘내가 죽어 백화처럼 흰것이 송없지 않다.’ 백화나무는 산속에서 초탈해서 살고 있는 자작나무다. 자작나무가 총루가 되기까지 사는 건 좋은 풍경이다. 그런데 백화처럼

필 것이 흥이 된다. 해골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윤동주는 정지용처럼 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본다. 이는 정신의 모습이며, 윤동주의 경우에는 왠지 이상하게도 임박한 운명에 관한 예감으로 읽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상향의 세계인 또 다른 고향을 갖고 싶다는 말의 울림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별 헤는 밤」은 41년 11월 5일 누상동 하숙생활을 지나 북만주에 다녀온 후 쓴 시다. 이 시와 더불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도 별이 등장한다. 우리는 이 ‘별’을 음미해야 한다. 당시 다른 시인들에게도 별은 단골 소재였다. 김남천(1911.3.16.~1953.8.16.)의 「등불」에도 ‘나 혼자만의 등불’(정확한 구절 확인 요망)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모두 자연물로서의 깨끗하고 순정한 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상허론으로 읽어야 한다. 게오르그 루카치(Gyrgy Lukcs, 1885~1971)는 『소설의 이론』의 첫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흰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때의 별은 어떤 이상이자 표지판,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에게 모든 사람이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별빛 같은 것은 사라졌다. 정지용도 「백록담」에서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고 표현했으며, 후에 윤동주 또한 「별 헤는 밤」을 썼다. 다시 말해, 「백록담」과 「별 헤는 밤」에서의 ‘별’은 자기만의 삶의 이상과 고향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시도 참 묘하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내 이름자를 써 보고/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판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름은 생명이다. 훗으로 이름을 덮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뜻한다. 이 시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 이렇게 깊게 자기 운명을 의식했구나!’

윤동주의 시 속엔 시대의 험난한 파도를 뛰어넘고 초극하려는 사람이 있다. 타협할 생각이 없고, 조금이라도 타협해야할 때에는 참회록을 쓸 수밖에 없는 정신을 가진 사람. 윤동주는 동인지를 내면서도 삶의 위태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언제든지 자신을 주시하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을 감지해냈을 거다. 아마 절대 절명의 위기를 예감하면서 운명의 직관이 피어난 게 아닐까.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 얼마나 무서운 구절인가. 윤동주의 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는 정지용처럼 어떤 시대의 파구를 초극해야 한다는 강렬한 희구 속에 살아왔다. 자기 자신의 삶과 정신적 상태를 정확히 응시하면서도, 압박한 죽음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정신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 시를 읽으면, 그 정신적 긴장이 어디에까지 다달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끝에 누상동 시절을 마감하며 하숙집을 옮긴 윤동주는 연희전문대를 졸업한다. 송몽규와 함께 진로를 고민하던 그때는 1941년 12월 8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즈음이었다. 그들은 일본이 필패할 것이라 생각하고, 언젠가 닥칠 독립을 위해 지적 연마를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러한 유학 동기는 당시 송몽규를 심문했던 특별고등검찰의 조서에 남아있다. 그들은 더 멀리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본 유학을 위한 도향증명서를 받기 위해 창씨개명이라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창씨개명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임종국(1929~1989)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을 읽어보면 창씨개명이 오해와 편견에 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 씨명개정에 관한 창씨개명령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 창씨개명은 단지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보통 두 자인 일본의 성은 한국과 똑같은 성씨로 읽힐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식 성 그대로 불리며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 대신 하야시로, 박이 아니 보꾸로, 김이 아닌 기무로 말이다. 이는 일본식 가족 제도의 수용을 의미했다. 본적도 옮길 수 없었다. 게다가 일본 이름이 있어도 일본식 성 때문에 자신의 출신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보자. 임보령이 김미화에게 시집을 가면, 김보령이 되어야 했다. 이는 일본식 가족 제도의 수용을 의미했다. 성을 바꾸지 않아도 일본식 가족 제도의 수용되면서 남편성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일본 이름처럼 하고 있어도, 옥천 대궁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옥천이 어딘가. 충천복도다. 그럼 조선놈이다.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일본식 느낌이 나는 성으로 바꾸든 말든 간에 전부 일본인 취급을 했다. 이는 조선 사람들의 가족제도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면서 일본식 가족제도로 바꾸었다. 그 핵심은 뭘까.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성이란 부계유통의 표지다. 요즘엔 법이 바뀌었지만, 관습적 가족제도 안에서 여성의 성은 자식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르다. 성을 보면 어느 지붕 아래 있는지 드러난다. 한국은 데릴사위여도 성이 바뀌지 않지만, 일본은 아니다. 그래서 데릴사위를 가리키는 일본말은 ‘양자’로, 입양한 자식을 일컫는 단어와 함께 쓰인다. 그 집에서 나왔을 때 성을 다시 버리거나 원래의 집의 것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 법에 따르면 자유롭게 성을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도 백퍼센트 창씨개명에 적용받았던 것이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 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차별을 남겨두는 제도였다.

정지용도 大弓修(오유미 오사무)로 창씨개명을 했다. 원래 오랑캐 이자다. 이걸 파자로 하면 큰대자다. 활부자가 된다. 큰 활을 쓰는 족속은 동의족이다. 우리를 가리켜 동족오랑캐라고 하지 않나. 정지용보고 창씨개명하라 했더니 대궁이라고 만들어버린 거다. 신석초(1909.6.4.~1975.3.8.)는 《문장》 중간호에 「弓矢」(확인 요망)를 썼다. 충청남도 서천 출신인 신석초의 절친은 이육사였다. 이런 식으로 한 개명한 것이다. 윤동주도 히라누마로 개명했지만, 그것은 윤씨 집안에서 개명한 것이기에 윤동주 자신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요시찰인물이었던 송몽규는 일본에서도 미행과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와 함께 윤동주도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사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당시 일본 본토에서 사상범으로 잡힌 조선인들은 고문은 물론이고 강제 노역도 빈번했다. 일본에서 입었던 윤동주의 옷이 얼마나 헤진 상태였던가. 게다가 당연한 듯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p.12 첫 문단과 내용 겹침. 실제 녹취에서도 그러함(1차녹취-p.8/p.14)) 「참회록」은 윤동주의 순수하고 결백성을 보여주면서도, 그 선택의 과정이 결국 죽음에 달는 길이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 윤동주문학관



윤동주 문학관은 청운동 쪽에 자리하고 있다. 수성동 계곡에서 인왕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스카이웨이가 나왔다. 우회전을 해 20분 정도 걸어가니 문학관 표지판이 보였다. 버려지다 시피 한 옛 수도가압장 시설과 물탱크를 재탄생시킨 장소였다. 그 안에 들어갔다. 정병욱이 가지고 있던 윤동주의 시집도 보고, 윤동주의 생애를 영상으로 틀어주는 공간을 지났다. 철문처럼 생긴 입구로 들어가자 사방의 벽으로 둘러쳐진, 교도소 감방의 느낌을 주는 캄캄한 공간이 나왔다. 나는 그곳을 걸으며 윤동주의 「서시」를 떠올렸다. 1941년 11월 20일 작 「서시」는, 시대의 운명 속에서도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완벽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수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윤동주가 젊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젊은이의 순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윤동주는 젊었을 때 이미 자기의 말년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이 순수를, 젊은이의 유치함이나 어리숙함이나 서투름을 가지고 있는 순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완전한 순수다. 천재적 시인, 비범한 시인이 갖고 있는, 이른 때에 완전성과 무한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순수다. 조지 고든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22.~1824.4.19.)이나 퍼시 비쉬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 존 키츠(John Keats, 1795.10.31.~1821.2.23.), 아르튀르 랭보(Jean Nicolas Arthur Rimbaud, 1854.10.20.~1891.11.10.) 등 이른 나이에 시를 쓰다 그만 두거나 죽어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순수는, 그 스스로 무한한 세계에 직면해 자기 자아를 바치고 투신하며 애쓴 인간만이 도달하는 정신의 경지다. 그것이 시가 될 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같은 구절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젊은이의 순수가 아니며, 무한에 도전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순수다. 「간」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차용한 시로, 화자는 독수리에게 간을 내어준다. 이 시를 보며 윤동주의 순수란,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순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나의 생각이 깨질까봐 영화 동주를 보지 못했다.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방민호



약력

196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고등문학교과서의 책임 저자이기도 하다.

1994년 《창작과비평》 제1회 신인평론상 당선으로 비평활동을 시작하여, 문학평론집 『감각과 언어의 크레바스』, 『행인독법』, 『남아래의 침묵』, 『비평도그마를 넘어』 등을 출간했고, 2001년 《현대시학》에 신인추천작품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집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를 펴냈다. 2012년 《문학의오늘》에 단편소설 『짜장면이 맞다』를 발표하면서 소설 창작을 시작하여 『연인 심청』,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답함』을 집필했다.

한국 현대문학의 작가 및 작품 연구, 학사 연구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경성 모더니즘과 해방 후 8년의 문학사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 『서울 문학 기행』은 바로 그 연구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한국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 열 명을 엄선했다. 서울이 그들에게 남긴 문학과 삶 이야기를 조명한 책이다.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선착순 접수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2019 서울 문학 기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